

博物館資料 電算化의 必要性과 問題點(要旨)

—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

羅善華*

I. 序

1989년 現在 韓國大學博物館協會 加入校는 63個校에 이르고 博物館 設立이 半世紀를 넘는 學校도 2~3校가 될 정도로 大學博物館의 歷史도 깊어지고 數的·量的으로 증대되어 우리 社會에서 大學博物館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各 大學博物館은 그 設立趣旨, 地域社會의 요청, 博物館 자체의 調查研究方向에 따라 수장되는 資料도 各 大學 別로 특색을 지니며 蓄積되어지고 專門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방대해지고 細分化되어 쌓인 博物館의 多樣한 資料와 學術情報은 다시 再構成되어 總合的인 研究結果를 유도해내는 博物館學的 研究에 利用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專功學界와 일반에게 단편적인 資料提供의 역할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現在 우리 的 實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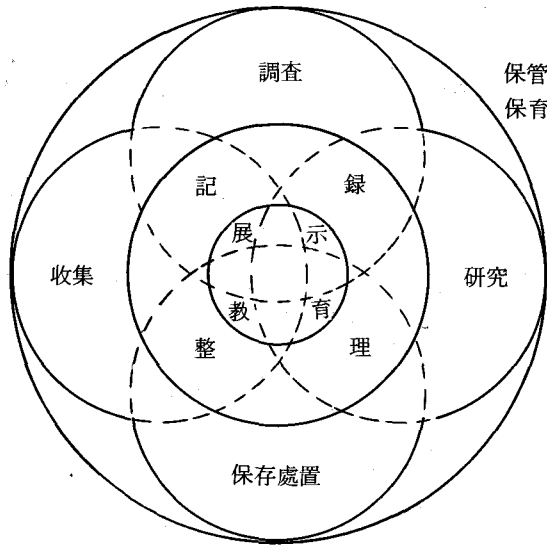
大學博物館이 專門研究기관으로서, 지역社會의 社會교육기관으로서, 歷史·文化에 관한 정보 서비스 센터로서의 확대된 博物館의 역할이 새로이 인식되어야 할 지금에는 무엇보다도 所藏資料의 合理的 管理가 가장 기초작업이다. 왜냐하면 博物館의 주요 機能을 움직이는 중심 軸은 資料의 管理와 運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資料管理는 일반적인 박물관의 收集·保管·展示를 위하여 필요한 所藏品記錄의 資料와 史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料的價值發掘, 社會教育用資料發掘, 調查研究主題選別等 넓은 의미의史料化整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資料管理의 필요성은 다음의圖解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資料整理의 位置 : 後藤和民製圖 (1978)

이 표에서 博物館은 收集·研究·保存處置에 관한 자료가 함께 蓄積되어야 하고 그 蓄積된 資料가 展示에 반영되어 展示로써 일반에게 교육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구조를 說明하면서 資料整理作業의 位置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수집된 각종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이를 전시와 교육에 활용하는 유기적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하나를 기록한 자료의 作成과 축적만이 아니라 資料集成의 重要함과 必要性이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 大學博物館의 資料管理는 所藏資料를 記錄하는 단계의 整理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고 分類整理도 미비하며, 더욱이 各學校間에 資料와 情報의 交換도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는 大學博物館의 人力不足, 管理체제 問題, 事業計劃의 方向等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63個 大學이 각각 나름대로 수집하고 연구한 資料를 各博物館은 물론 全大學이 活用할 수 있는 유기적인 情報관리체도가 全無한 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정보증가의 변환기를 맞아 모든 情報를 電算化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데 가장 現代的이고 科學的인 方法으로 管理되어야 할 博物館 資料는 가장 낙후된 施設에서 人力과 時間의 不足으로 整備되지 못하여 他國에 비하여 博物館의 機能도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성장토록 一次的으로 合理的인 資料管理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方案의 하나는 방대한 量의 資料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電算化計劃이다.

博物館資料의 電算化는 資料의 收集·分類·記錄이 신속·정확해지므로 展示·出版·教育에의 利用度가 높아져서 學問的 進步를 위한 기여는 물론 博物館學的 研究機能의 開發도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그간 수차에 걸쳐 博物館資料電算化의 必要性이 거론되었으나 아직도 예산·人力·이해부족등 여러 가지 이유로 實現되지 못하였다. 이제 63個校가 加入되어 있는 大學博物館協會가 중심이 되어 博物館資料電算化를 위한 프로그램을 共同開發한다면 不足한 예산과 힘으로도 合理的인 資料管理 運用은 원활하리라고 본다. 또한 共同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은 全 大學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量의 資料가 集성되어 交換이 가능하여 집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對外交流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保有하게 될 것임으로 여기에 資料電算化의 必要性을 열거하면서 電算化를 위한 人力資料作成에 필요한 소장품의 共同分類案 等 몇가 지 問題를 제안하여 함께 論議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을 제의하고자 한다.

II. 資料電算化의 必要性(효율성)

博物館所藏資料 電算化의 必要性和 利用價値는 앞의 序言에서 피상적으로 附言하였으나 여기서는 現在 大學博物館이 처한 人力과 空間不足의 問題해결을 위한, 또 박물관 기능의 확대와 充實을 위한 필요성 몇가지를 열거하기로 한다.

1) 資料의 記錄·分類·保管업무의 合理化

증대되는 資料 또는 情報의 처리 방안은 2次大戰以後 급격한 發展을 보았으나 博物館에서 채택한 方法은 대부분 資料를 card로 運用하는 管理이다.

박물관 업무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資料化 하는 card 作成과 필요한 資料를 쉽게 引出할 수 있도록 分類整理하고 保管하는 일이다. 보통 資料一件에 3~5벌의 card를 作成하고 있는데 學問의 分化에 따라 card는 점점 細分이 필요하게 되고 分類整理하는 일은 資料의 증가에 따라 博物館專門人力의 不足, 또 分類된 card資料의 비치장소의 不足現狀을 더욱 심각하게 하여 博物館 관리의 現實的인 한 問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card運用의 資料管理制는 우선 쏟아지는 資料와 情報의 量的 增加로 因하여 管理의 限界가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資料管理의 機械化·電算化로의 改革이 絶실히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資料管理電算化 實現으로 얻게 되는 人力·時間·空間의 經濟性은 電算化開發 必要性의 한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2) 資料利用의 迅速·正確性으로 教育·機能확대

學界와 一般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各種 資料, 情報의 利用 要請에 對한 博物館側의 資料提供 업무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資料提供을 요청받았을때 필요한 資料의 引出이 迅速·正確하여야 하는데 card運用의 管理體制에서는 引出者의 專攻에 따라 또는 能力에 따라 그 정확성이나 迅速성이 좌우되곤 하였다. 그러나 電算管理 時에는 非專門인도 引出作業을 담당할 수 있음으로 博物館은 항상 신속·정

확한 資料를 그 利用 對象者에게 提供할 수 있게 되고, 그 利用 對象者도 확대됨으로 展示·出版·講演으로의 社會教育과 함께 歷史·文化·藝術의 영역에 관한 모든 資料를 一般에게도 제공하는 文化 資料 서비스 센터의 기능도 더 할 수 있게 되어 社會教育機能이 확대될 수 있다.

3) 學問的發展에 기여

迅速·正確한 資料運用은 引出된 資料를 目錄化하는 작업까지 이루어 짐으로 업무량의 축소와 함께 學界發展에도 기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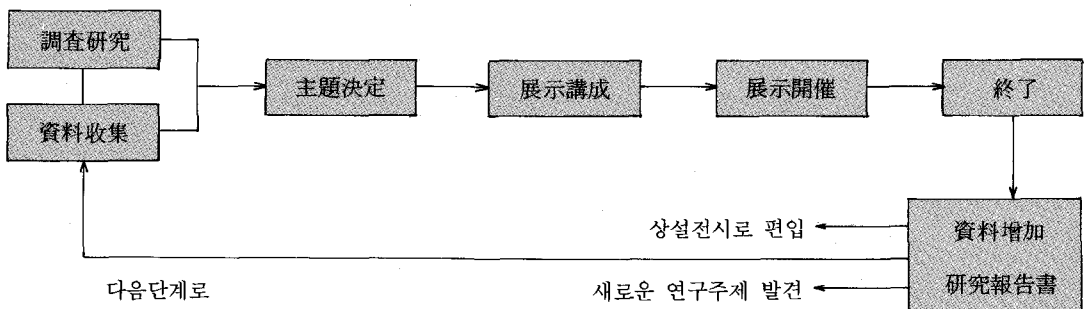
즉 신속·정확하게 引出된 資料가 學界에 제공되면 資料收集, 검색의 시간이 단축되고 더우기 各 個體의 事項 이외에도 電算化로 集合된 資料의 結果까지도(수량·비율 등) 提示됨으로 資料分析期間도 단축됨으로 研究方向은 과거의 資料收集으로 얻은 結果의 단계에서 벗어나 集成된 資料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과 분석이 중심이된 폭 넓은 研究開發을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博物館資料 運用의 合理化가 學問의 進步를 유발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4) 博物館學的 研究機能 開發

博物館의 調查研究機能은 ① 資料수집을 위한 調查研究 ② 保存에 관한 科學技術의 研究 ③ 專門分野에 관한 教育的 研究 ④ 各種의 위탁 調查研究 등으로 大別 할 수 있는데 그간 우리 大學博物館은 資料中心의 調查研究로 資料收集, 또는 收集된 資料를 史料化하는 단계의 調查研究가 대부분이었다.

研究方向은 大學研究所의인 性格으로 歸納的이고 細分化된 管理者의 專攻中心이었고 個人 研究업적 중심이어서 1次자료의 축적으로 法側을 찾아내는, 博物館學的인 法側의 體系化를 위한 演繹的인 研究方法이 시도되지 않았었다. 이제 資料의 電算化로 個體資料를 總合化하고 각각의 研究結果를 集成하게 되면 이를 展示計劃에 반영시켜 또다른 法側이나 結果를 획득하게 됨으로 그곳에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研究 主題를 발체하는 博物館學的 研究分野가 개척될 수 있다(圖表참조). 이와 같은 研究方法은 博物館의 主要機能의 하나이지만 現在는 資料管理의 合理化 後에야 이와같은 조사연구의 박물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Ⅲ. 博物館資料 電算化를 위한 諸問題

博物館資料에는 保存價値가 있는 遺物과 各種情報가 있다. 遺物은 遺物自體의 內容을 記錄한 1次資料와 遺物에 人工이 加하여져서 얻어진 사진, 복제, 拓本 實測圖등의 2次資料로 분류되는데 박물관 所藏資料는 1次·2次資料가 모두 갖추어 저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 資料의 전산화는 사진 또는 實測圖가 人力될 수 있는 機種의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1989년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보급되어있는 電算機種 가운데 現 大學博物館의 예산과 실정에 맞는 것은 1次資料인 遺物의 記錄에 관한 것만 관리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우선 1次資料만 전산화되어도 앞서 언급한 박물관기능의 合理化, 확대효과는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 梨花女子大博物館이 1980년에 개발하여 使用하고 있는 全國遺蹟·遺物 Slide 10,000件的 관리 전산 프로그램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지장없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불과 8bit의 小形 micro computer로 slide의 기록만을 人力하였으나 강의용, 연구용의 slide를引出하는데 무리 없이 시간과 人力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먼저 1次資料의 전산화 계획부터 시작하면 영상자료는 後에 보완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부착할 수도 있다.

資料電算化의 기본작업은 우선 정확한 記錄과 완벽한 分類이다.

管理와 引出에 필요한 기록과 分類項目을 결정짓는 작업에 전산화의 효율성이 支配됨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圖書館의 分類方法과 같이 全 博物館의 共通分類 code를 作成하는 일이 重要한데 그 작업이 難題이고 問題點이다. 博物館의 共通 전산프로그램의 開發은 우선 人力資料의 引出 必要事項, 分類方法 등의 問題點에 대하여 博物館員間的 공동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案이 作成될 수 있다고 본다. 즉, 各各 소장품의 내용에 따라, 전공별로 分野를 나누어 問題點을 보완하면서 現在 시행되고 있는 各 大學의 分類方法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는 분류案을 세워야 할 것이다.

1) 共同 分類案作成

現 各 大學博物館의 資料分類는 대체로 物質別, 時代別, 用途別, 收集方法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이 유사하나 大分類와 細分類의 體系는 各 학교의 편의대로 定하고 있어 共通되지 않고 있다.

出版된 所藏品目錄으로 본 大學博物館의 分類案은 다음과 같은 2가지 類形으로 나타났다.

| 大 分 類 | 細 分 類 |
|-------|---------------|
| ① 物質別 | 用途別, 形態別, 材質別 |
| ② 用途別 | 物質別, 形態別, 材質別 |

위와 같은 大分類와 細分類는 所藏資料의 內容에 따라 分類法이 같지 않다. 美術品이 主된 곳은 材質的, 技術的 分類, 用途別 分類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東洋圈의 공통적 현상이다.

이와 같이 大分類와 細分類는 서로 섞이어 分類되고 있으므로 共同分類案을 위하여는 所藏品의 品目별로 各 大學이 分擔하여 分野別로 合理的 分類法을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이 자료 전산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課題로 등장된다.

2) 名稱의 統一

名稱의 統一問題는 그 必要性이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國立博物館의 韓國考古美術研究所에서 試案을 作成 한 일은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 名稱의 問題도 各種資料를 多樣하게 소장한 大學博物館에서 전자화를 위한 統一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업이다. 요즘은 한글과 漢字의 혼용으로 더욱 그 필요성이 대두되나 電算化를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축약된 명칭의 統一이 分類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함으로 名稱의 統一과 合理性에 對한 재검토 작업도 해결해야 할 問題이다.

3) 人力內容의 檢討

人力資料는 대개 引出의 경우와 맞춘 必要事項이 기재되어야 함으로 管理上 必要한 내용과 專攻學界의 研究資料로 活用되는 여러가지 경우에 필요한 몇가지가 基本的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야 한다.

| 項 目 | 內 容 |
|------------|-------------------------|
| 1. 各種番號·記號 | 分類番號, 登錄番號 |
| 2. 名稱 | |
| 3. 時代 | 製作年代, 使用年代 |
| 4. 收集 | 收集年月日, 收集者, 收集方法 |
| 5. 形質 | 形狀, 形態, 크기, 重量, 材質 |
| 6. 機能 | 用途, 構造 |
| 7. 特術 | 技法, 형식, 特質 |
| 8. 由來 | 傳承, 傳未, 經由, 出土狀態 |
| 9. 保全 | 現狀, 復元, 修理, 保存處理者, 日, 時 |
| 10. 保管 | 收藏年月日, 수장처, 이동사항 |
| 11. 기타 | 2次資料색인(원판번호, 실측도 번호 등) |

以上이 전산자료로 人力될 最少의 必要事項이다. 그러나 각 박물관의 資料提供要請의 여러 경우를 종합하여 필요사항을 재검토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검색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과 人力을 투자하여야 하는 일의 하나이다.

以上과 같이 박물관 資料의 電算化는 우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分類方法, 名稱의 統一, 資料의 검색이라는 막대한 量의 업무가 問題點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問題의 해결책은 大學博物館協會라는 共同의 기구를 活用하여 분담하면 求할 수 있다고 본다.

IV. 結

博物館의 合理的 운영, 박물관 기능의 확대라는 의미의 博物館資料電算化 作業은 앞으로 다가오는 國際社會에서의 大學博物館의 위치를 결정짓고 그 역할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쏟아지는 國外的 資料를 어떻게 人力하여 利用하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博物館의 機能 확대와 學問的, 進歩, 미래를 위한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現實은 資料의 檢索, 共通分類案作成, 名稱統一 등의 문제해결과 함께 상당한 예산의 투입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情報社會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로 대응하는 現博物館의 資料管理는 이제 더이상 問題해결의 어려움과 예산 탓으로 제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 없는 時點에 와 있으므로 그 타개책을 박물관 관계자 스스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해결방법의 하나는 공동체인 大學博物館協會를 活用하는 方法이다. 大學博物館 各各의 性格에 따라 主된 所藏品의 現分類, 管理體系를 綜合하면 적은 노력으로 共通分類案을 作成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예산도 분담할 수 있으므로 電算化計劃은 成功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地域社會教育, 博物館員의 자질향상, 정보교환 등을 設立目的으로한 大學博物館協會가 이제 박물관 內實을 위한 資料와 情報統計의 기틀을 마련하고, 國際交流를 주도하는 文化 center로의 박물관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資料管理電算化作業에 참여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博物館資料의 合理的 管理를 위한 박물관 관계자들의 共同協議와 論議가 協會에서 구체적인 實行을 위한 全段階로 시작될 수 있다면 자료관리의 合理化 作業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